스위스

스위스의 原子力PA狀況

-知識人을 대상으로 專門誌 發行-

原子力發電設備容量：	307.9萬kW
運轉基數：	5基
總發電電力量에서 占하는 比率：	37%

國民投票

스위스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국민투표는 제1회가 1979년이었다. 투표결과는 추진 51.2%, 반대 48.8%였다. 제2회는 1984년으로 추진 53%, 반대 47%였다.

그러나 체르노빌사고후 반원자력운동이 활발화되어 1987년 1월, 10월 반원자력의 이니시어티브가 10만을 넘는 서명을 모았기 때문에 1990년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체르노빌사고 이후 반대운동에서는 두종류의 주장을 볼 수 있다. 즉, ① 10년간 새로 건설하지 않는다, ② 폐기한다 두종류이다.

연방에너지청에서는 원자력에 대체할 에너지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전문가그룹(EGES)이 1987년 봄에 세종류의 에너지선택케이스를 제시했다. 그 에너지시나리오는 ① 원자력 계속, ② 신규 건설 중지, ③ 2025년까지 폐지 세가지이다.

연방정부는 前記 ①~③보다 더 적절한 안을 요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에너지시나리오는 의회에서 1년동안 검토를 거쳐, 의회는 하나의 안을 정하여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현상황에서는 ②의 모라토리엄(신규 건설 중지)과 ③의 폐지 등 두종류가 부쳐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① 원자력 계속, ② 대체에너지, ③ 사용자측의 효율 향상 등 세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투표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①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국민투표의 예측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現　況

〈에너지시나리오에 대한 各界의 反應〉

공표전에는 안이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공표후에는 경제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도 언급되고 있다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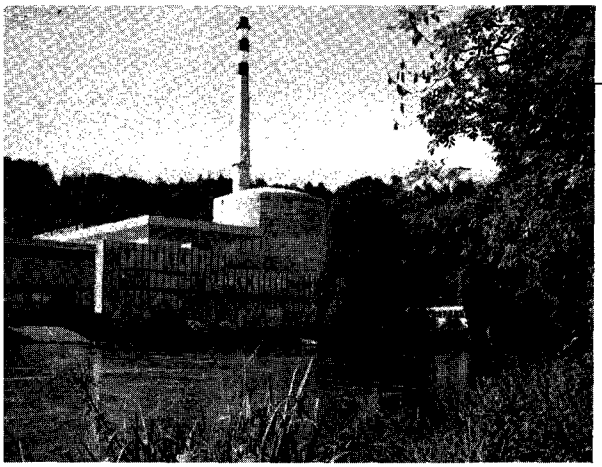
공업계에서는 평균 에너지코스트가 2% 정도이므로 큰 영향은 없겠으나, 일부산업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議　會〉

현재 스위스의회에서의 원자력문제에 대한 관심은 ① 3개 원자력발전소(Kaiser, 그라벤, 벨보어)계획의 취소, ② 에너지절약에 관한 연방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토, ③ 트랜스·뉴클리어社 관련 등 세가지이다. 연방정부로서는 건설이 중지된 카이저는 차치하고, 그라벤, 벨보어는 보류상태로 해 두고 싶은 의향이다.

〈廢棄物〉

폐기물의 안전처분을 위한「프로젝트 게벨 1985」계획이 1987년 7월에 연방의회에서 승인되었는



데 低·中準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高準位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중이며, 지역주민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취지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요한다.

反對運動

카이저·아우그스트에 인접한 바제르부근은 화학공장이 많고, 인구밀도도 높다. 과거에도 제약회사의 약품에 의한 라인강 오염이 있어서 옛날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이 많았다. 카이저·아우그스트의 상태는 「죽었지만, 아직 매장전」이라고 말할 정도이며, 한창 논의중이지만 관계자는 체념하고 있었다.

스위스 전체로 보면 원자력 반대가 높은 상황은 아니나, Leibstadt발전소와 같은 州內에 Kaiseraugst 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 동향에 따라 미묘한 영향을 받고 있다.

Leibstadt발전소 對岸의 독일측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는 발전소에 의한 혜택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주변의 뜬소문에 의한 피해는 전혀 없다.

PA對策

스위스는 연방차원인 연방에너지청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원자력PA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고 있으나 省에너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있다.

전문가그룹(EGES)에 의한 에너지시나리오에 대해서는 TV토론 등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나, 국민은 省에너지에 대해서 지식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다. 그러나 앞으로의 에너지시나리오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시작되고 있다.

스위스原産에서는 「케른·분쿠치」라는 정보지를 여론지도층을 위해 年 30회 발행하고 있는데 과학자, 기술자, 기자 등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워 호평을 받고 있다. 7000부 발행하여 대상이 되는 교사, 저널리스트, 의원들에게 직송하고 있다.

Leibstadt발전소의 PA대책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원자력연구소와 Beznau가 동주내에 있으며 옛날부터 주변주민이 원자력에 친숙해 있기 때문이다. 또 1979년의 TMI사고가 발생한 해에 특히 PA대책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발전소에 초대하여 견학시켜 신뢰감을 확립했는데, 당시의 인간관계가 현재도 도움이 되고 있다. 주변주민에게는 건설기간에도 개방하여 보도록 했다. 그 결과 1977년부터 1984년까지 10만명이 방문했고, 견학을 한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약 50만~60만명의 이해촉진으로 연결되었다.

PA대책의 자세는 성실하게 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PA의 주안점은 얼마나 전력이 중요한지, 필요한지를(기술론은 말하지 말고)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체르노빌사고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과학적으로 다방면에서의 어프로치가 중요하다.

1990년의 국민투표에 대한 대책으로 유인물이나 카다로그 등을 사용하여 주정부나 전력회사가 전력에 관한 정책을 사회 각층에 홍보하고 있다.